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하나님 앞으로	시역과 행사 안내 진양과 경배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박진성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요한3서 2절사도행전 20:17-27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삶이란?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찬송 /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통일찬송 502장)
헌신과 나눔	봉 헌 / 홍정임 집사, 김훈테 집사 * 봉헌찬송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삶과 세상으로	* 미라나타 주 예수여 * 축 도 / 김성배 목사

(※표는 모두 일어 섭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묵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요찬양예배

8:00 pm

기도 : 유덕하 집사
말씀 : 김성배 목사 / 출애굽기 4:1-17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묵상에세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갈릴리 바다 가운데서 폭풍 만난 예수와 제자들>이다. 뱃머리의 다섯 사람이 격랑에 맞선다. 둘은 돛을 붙잡고, 둘은 돛대 주위에서 돛과 돛대에 지탱하려고 한다. 가장 앞에 있는 한 손으로 줄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자신을 던지는 몸을 막고 있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려봐야 그 물을 막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그의 허튼 손짓만 그릴까?



배 중앙에는 두 명이 나온다. 한 명은 배 안의 작은 공간을 바라보며 숨을 곳을 재보는 듯하고, 그곳에 숨은 한 사람은 불안한 듯 밖을 조심스레 살피고 있다. 뱃머리의 다섯 명이 호기로운 인간이라면, 배 중앙에 있는 두 명은 언제 부서져버릴지 모를 배 안에서 숨을 곳을 찾고 있다. 비겁자라고 혹평하고 싶지만 우리 자신의 모습과 다를 바 무엇인가?

그 옆에 푸른 빛 계통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무너져가는 배의 돛줄에 자신의 몸을 지탱하고 있다. 모자를 쥐고 있는 손은 우리를 더욱 씩씩하게 만든다. 이 상황에서 모자를 지킨들 무엇하겠는가. 백척간두의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속한 것을 잡아보려는 어리석은 사람은 렘브란트 본인이었다.

다른 다섯 명 중 화면 맨 위의 사람은 지금 일어난 위기 때문에 겁에 질려 있다. 그 아래 사람은 예수의 몸을 흔들며 항의하고, 그와 함께 한 사람은 예수에게 다급하게 상황을 설명하는지 아니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보라는지 알 수 없지만, 둘 모두 선생을 공경하는 태도는 아니다. 그 다음 인물은 무릎 꿇고 기도한다. 그 아래 있는 사람은 배멀미를 이기지 못하는지 배 밖으로 토하고 있다. 그의 육체는 문제를 대면하지도, 해결하지도 못할 정도로 연약하다. 배의 후미에서 배의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은 키를 쥐고 있는 있으나 배를 조정하는 못한다. 반면 예수는 이제 막 깨어난 듯 자신에게 항의하는 두 제자를 바라본다. 예수의 오른손은 가슴에 다른 손은 별 일이 없는 듯 느슨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모두 한 배 안에 있지만 예수만이 다른 사람들의 동요에 이렇듯 평온을 유지한다.

렘브란트의 그림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은 생생하게 성서 이야기를 상상하도록 도와준다. 또한 그들의 모습은 '배'에 닥친 밤바다의 폭풍 속에서 감상자 당신은 어떤 인물과 유사한지 묻는다. 감당할 수 없는 시련에 작은 힘으로나마 맞서는 돈키호테인가? 작은 피신처에 몸을 숨기는 비겁자인가? 부질없이 상황을 통제해보려고 배의 키를 잡고 있는가? 그저 겁에 질려 있거나, 위급한 상황에도 멀미에 지쳐 있는가? 무너져가는 터전에 몸을 지탱하여 부질없는 것을 방해보려고 하는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사람을 무례하게 흔들어 깨우는가? 그것도 아니면 그저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는가?

우리는 폭풍을 두려워하고 우리 인생이란 '배'에 그리스도가 함께 타고 있음을 망각하고 있다. 렘브란트는 자신을 그림 속에 그려 넣는 방식으로 예수의 질책을 다시 우리 귀에 생생히 들려오게 한다. "왜들 무서워하시오. 아직도 믿음이 없단 말이오?" 아직도!

김학철, 렘브란트, 성서를 그리다.중에서

한 주간의 기도

"상식과 경험을 우선시하며 기도와 믿음으로 살지 않아 영적 능력이 없는 제 현주소를 보며 회개합니다. 기도의 무릎을 회복해 영적 능력을 덧입게 하시며, 제 연약한 믿음을 새롭게 하셔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조차 해결하게 하소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MISSION PASTOR 정종렬 목사
CHILDREN'S MINISTER 고순제 전도사
YOUTH MINISTER SAGAR 전도사

(이:1:445장) "간수여 너는 간수라 하여도 극이 음수여 간수여
 간수여 너는 간수라 하여도 간수라 하여도 간수여 간수여 간수여 간수여
 간수여 너는 간수라 하여도 간수라 하여도 간수여 간수여 간수여 간수여 간수여

교회와 사역

우리는 어떤 교회를 지향하는가? 혹시 나도 모르게 교회의 외형적 성장에 대한 압박감 혹은 실패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작으면서도 교회다울 수 있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려는 교인의 일환으로 앞으로 칼 베이더스, 『작고 강한 교회』(생명의 말씀사, 2018)의 내용을 소개한다.

작은 교회는 다르다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처음에는 온 열정을 다해 사역을 시작하지만 고된 사역으로 심신이 고갈되기 쉽다. 때로 변명으로 최선을 다 하지 않을 때도 있다. “돕고 싶지만 예산이 충분치 않습니다.” / “대형 교회처럼 전문적 음악가가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을 끌어 올텐데.” / “나는 성격이 급해. 따라서 관심 없는 이들을 모아서 팀을 구성하기 보다 내가 직접하는 게 나야.” / “사람들은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에 다니는 것을 더 원하지 않아.” / “나 이든 사람들을 훈련하는 일은 힘들어.”

작은 교회는 자원이 부족하기에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없으므로 변명 없이 부족한 점이 있을 때는 항상 좀 더 잘해 보겠다는 각오와 노력이 필요하다. 방법을 알지 못할 때는 어떻게든 그 방법을 찾으려고 애써야 할 의무가 있다. 하나님의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 먼저 모든 교회가 ‘크기의 문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즉, 교회의 핵심 원리는 크건 작건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평균적으로 대형교회의 원리 가운데 100명 이하의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교회 성장과 리더십의 원리는 4분의 1도 되지 않는다.

‘큰 숫자의 법칙’에 따르면 규모가 일단 어느 정도 되면 사람들의 상호관계 방식이 큰 변화가 없고 행동이 예측 가능해지기 쉽다. 여론 조사처럼 표본이 크면 일일이 모든 이에 대해 묻지 않아도 국민 전체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하다. 반대로 교인의 숫자가 작은 경우, 개개인의 개성과 그들 사이의 관계가 더 크게 작용하기 시작한다.

큰 교회는 잘 만들어지 주자 표시판, 친절한 예배 안내 위원, 연령층에 맞는 보육 장치, 전문적 예배 팀 등 많은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작은 교회에는 상황이 그런 식으로 전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내가 큰 교회를 나간다면 내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다. 나는 청중의 한 사람이다. 함께 찬송가를 부르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며 듣고만 있어도 된다. 소그룹에 참석하지만 않는다면 능동적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내가 50명 이하의 교회에 나간다면 내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기 어렵다. 예배 전 교인들이 대화할 때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다가 가 나를 소개해야 할까? 아니면 예배당에 혼자 앉아 있어야 할까? 또 교인들이 커피를 줄 때 그것을 예배당에 가져 갈 수 있을까? 내가 아이를 데려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형교회에서는 안내판이나 잘 훈련된 안내 위원 도움으로 어떻게 할지 금방 알 수 있지만, 작은 교회에서는 명시되지 않은 규칙들이 많거나와 다른 작은 교회와 다른 규칙들도 존재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교회들이 작다고 우물해 하지 않으신다. 지난 주일도 힘든 하루였을 수 있다. 일주일 내내 주일을 위해 기도하고 연구하고 이를 전 순서 맡은 자들에게 책임을 상기시켰다. 주일에는 일찍 도착해서 문을 열고 모든 것이 깨끗이 정리됐는지 확인한 후 난방, 전등, 음향기기의 스위치를 켰다. 순서 맡은 이가 나오지 않아 당황한 가운데 적은 숫자로 예배가 시작됐다. 예배 후에는 필요한 것을 위해 기도하고, 건강에서 회복된 교우를 반갑게 맞으며 지난 주와 같은 불평을 인내심있게 듣고 개선을 약속했다. 분주한 목양과 사역의 주일이 지나갔다.

그러나 목회자와 사역자는 혼자가 아니다. 예수님은 지난 주 누가 왔고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신다. 크던 작던 교회에 구원받은 이가 있을 때 기뻐하시고, 우리가 충실함을 계속 유지할 때 힘 주시고, 고민하고 괴로워할 때는 함께 슬퍼하신다. 우리가 또 다시 충실하게 간절히 기도하며 이번 주일을 준비할 때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목회자의 감정이나 교인의 숫자와 상관없이 충성하기만 하면 기꺼이 상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11월은 “새롭게 출발하는 달”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된 길에 내가 법사에 걸리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말씀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힘차게 달려가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1. 오늘은 선교주일이며 금주는 선교주간입니다.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 전도자, 성도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3. 성도와 그 가족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노환과 질병으로 투병중인 부모님과 형제의 조속한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4. 제직/사역 세미나가 계속됩니다. (주제: 질서와 평안으로 든든해지는 교회)
5. 신년 심방이 2월 둘째 주부터 시작됩니다. 원하는 심방 날짜를 교우사역위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 유초등부 교육전도사/교사 청빙을 위해 힘써 기도해 주십시오.
7. 오늘 제직 세미나 일정 후 교회 대청소를 합니다.

★ 교우 동정 김영경 사모, 한국 방문 중 / 구은강 집사 한국 방문 (1/31 부터)

★ 이달의 생일 축하 김영준(1/7), 이진애(1/8), 정홍렬(1/21), 박강현(1/20), 구민성(1/26), 최윤정(1/28), 유혜영(1/29)

기도제목

1.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2.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정 학생(눈)의 빠른 치유를 위해
3.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홍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4.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5.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6. 주중 성경연구(소선지서/에스라/스헤미야/부흥강의들)를 위해

예배성경이

	1/20	1/27	2/3	2/10
주일예배기도	최내권집사	박진성집사	구민성집사	구은강집사
금요일예배기도	1/25	2/1	2/8	2/15
	오정은집사	유덕하집사	유동숙집사	정홍렬목사
주일헌금위원	1/20	1/27	2/3	2/10
	김훈태집사/홍정임집사	박진성집사/정줄리권사		
주일안내위원	1월		2월	
	정줄리권사		구민성집사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말 말씀요약) "영혼이 잘 됨과 같이" / 요한3서 2절

인생의 근원이 되는 영성은 우리 삶에서 직장, 사업, 자녀, 인간 관계, 취미생활, 오락에 밀려 버려곤 한다. 그러나, 영혼이 잘될 때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됨을 기억해야 한다. 가이오는 하나님과의 교제(영성)와 성도를 섬기는 삶(사랑)으로 칭찬을 받았다. 우리도 우선 순위를 영혼이 잘 됨에 두고, 믿음을 삶으로 살아 내며, 받은 은혜를 사랑과 섬김으로 보답하며, 섬기는 만큼 더 예수님을 닮아 가는 성도가 되어 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삶이란? / 사도행전 20:17-27

시험과 어려움을 겪으며 겸손과 눈물로 사역했던 바울이 보였던 사역의 모범은?

첫째, 예수님과 함께

둘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셋째, 성도와 함께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는 신앙의 본을 남기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삶이란? / 사도행전 20:17-27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납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는 마지막 부탁을 하기에 앞서, 그는 자신의 사역을 먼저 돌아보며 자신의 삶을 섬김으로 요약합니다.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님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과연 주님을 섬기는 일이 어떤 것입니까.

첫째,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섬김이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결국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와 함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주님과 동떨어져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습니까? 내가 주안에 주가 내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눈을 뜨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았고 사모하였기에 평생을 다하여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천국에 둥니다. 천국을 모르는 사람에게 천국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함께 가자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셋째,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포함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바울은 문화와 민족을 초월하여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모든 것을 다 줌으로 그들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일이 쉽지 않고, 사람이 변하는 것도 불가능 해 보입니다. 당연히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사람을 섬기고 변화시키기 위해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마무리하기 위해 인내해야 합니다.

바울은 주님과 함께 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백성들을 섬겼 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사역을 간단하게 주님을 섬긴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주님을 섬기기에 우리 주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습니까? 주님을 섬기기에 주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나도 주님을 섬긴다.'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에 서는 그 날까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섬김의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당신은 주님의 품으로 온다.”
 “당신은 주님의 품으로 온다.”
 “당신은 주님의 품으로 온다.”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치유, 회복, 나눔

January 27, 2019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 주 일 예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 주 일 학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15 AM
-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 성경 공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60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www.churchofservant.com

2019년 1월 27일

5-4호

새롭게 출발 달
 선교주일 / 선교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내 아가야 왜 거기서 울고있니?
 나에게 얘기해 주겠니??
 나는 너의 과거의 실수와 현재 상황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단다.
 나는 네가 가장 좋은 것을 주지만
 두렵음 네가 가진 것들을 빼앗아간단다.